“전통·현대·종교 넘는 장 펼쳐졌다”

태고종, 10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2026 영산재 · 태고락 페스티벌
대중과 소통하는 불교문화 모색
이 대통령 “전통의 새로운 가능성”



태고종은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제5회 태고종 영산재 및 태고락 페스티벌’을 봉행했다. 폭우 속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 의례가 시민과 만나는 접점을 넓히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적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풍급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친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궂은 날씨에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직접 경험하려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다. 괘불이 걸린 장엄한 무대에서 불교 의례가 펼쳐진 데 이어 젊은 스님들과 록 밴드의 공연이 광장을 채웠다. 전통 바라춤과 현대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은 불교 의례의 예술적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제5회 태고종 영산재 및 태고락 페스티벌’을 봉행했다. 영산재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불교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전통 의례와 대중음악 공연을 결합한 자리였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시공을 초월해 재현하고, 영산회상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불교 의식이다. 살아 있는 사람과 세상을 떠난 이들이 함께 진리를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범패와 바라춤·나비춤 등 불교음악과 작법무가 어우러진 한국불교 의례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은 법어에서 영산재의 의미를 되새겼다. 법상에 오른 운경 스님은 게송 ‘영산화상 시시현(靈山會上 是示現), 일체중생 동법회(一切衆生 同法會), 한수역류 묵북악(漢水逆流 默北岳), 산산수수 미가소(山山水水 微呵笑)’를 읊었다. ‘영산화상을 이렇게 시현했으니 일체중생들은 다 함께 참여해 법문을 들으라. 한강물은 거꾸로 흐르고 북악산은 말이 없구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우습다’는 의미를 가진 게송을 통해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영산재의 의미를 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에서 영산재를 “한국 전통불교문화의 백미”로 소개하며,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전통과 현대, 종교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경천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영산재를 음악과 춤, 의식과 장엄이 어우러진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불교 의례로 평가했다. 이어 영산재의 깊은 울림과 대중음악이 종교와 세대를 넘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전통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이어진 영산재는 신중작법,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 법고, 거불, 축원, 향수나열, 사다라니, 가지게, 축원화청 순서로 이어졌다.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아름다운 승무와 범패가 시민들에게 선보여졌다.

영산재에 이어 열린 ‘태고락 페스티벌’은 전통 의례의 예술적 요소를 현대 대중문화와 연결하는 무대였다. 럼블피쉬와 크랙샷, 노브레인, 체리필터 등이 출연해 록 음악의 열정과 에너지를 선보였다. 특히 태고종과 럼블피쉬의 협연은 전통 불교문화와 대중음악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전통 바라춤의 역동적인 몸짓과 록 음악의 강렬한 사운드를 결합해 기존 불교 의례에서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10월 22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5988만6790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과 신도회도 같은 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1000만원을 전하며 자비행을 펼쳤다.

한마음선원, 네팔 피해 지원에 ‘한마음’

본원 · 울산지원 10월 22일
약 7000만원…십시일반 모아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이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자비행을 펼쳤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10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5988만6790원과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본원 기금은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연한 금액이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네팔 대홍수 이후 9월부터 한 달간 신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고, 울산지원에서도 이 뜻에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회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3일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를 개최한 울산지원과 관람객들도 네팔 복구에 힘을 보탰다.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산사문화축제에 출연한 가수 이찬원 씨의 팬들이 약 500만원을, 가수 마이진 팬클럽에서도 100만원의 정성을 모아주셨다”며 “여기에 신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을 좋은 곳에 회향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학교나 보건소 건립 등 명확한 전달 대상을 지정해 기금이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마음내주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전국 각지에서 펼치고 있는 한마음선원의 포교 활동도 응원했다.

혜수 스님은 “내년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한마음선원에서는 합창제와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을 비롯해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솔 스님,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 이기정 본원 수석부회장과 울산지원의 천주현 신도회장과 구본곤 수석부회장, 노명수 청룡회장이 배석했다.

이현희 기자

해인사, 세계유산 팔만대장경 다시 새긴다

‘장경도감 대장경 판각 고불식’
10월 29일, 법계탑 특설무대서

법보종찰 해인사가 800년 전 팔만대장경 조성에 담긴 호국 정신을 잇고 인류 평화를 발원하는 새로운 대장경 판각 불사를 시작한다.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10월 29일 오후 2시 법계탑 마당 특설무대에서 ‘다시 새기는 대장경, 인류를 향하다’를 주제로 ‘해인사 장경도감 대장경 판각 고불식’을 봉행한다.

이번 고불식은 800여 년 전 고려인들이 몽골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던 숭고한 원력을 오늘날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원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인사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전쟁과 핵 위협,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등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새로운 불안과 갈등을 극복하고자 대장경 판각 불사를 추진한다.

행사는 오후 12시 30분 법보전 앞마당에서 ‘대장경 판각 조성 원만성취 만일기도’ 입재식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법계탑 마당에서 대장경 판각 고불식으로 이어진다. 오후 3시부터 법보전에서 전통 대장경 판각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입재하는 만일기도는 대장경 판각 조성의 원만성취와 지구의 안녕,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발원하며 1만일 동안 이어가는 장기 기도 불사다.

해인사는 선조들이 남긴 법보의 정신을 오늘의 수행과 전승으로 이어가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한다는 원력을 담았다.

이번 대장경 판각 조성은 기존 팔만대장경 경판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판에 담긴 정신과 전통 판각기술을 계승하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는 과정에 깃든 수행과 정성, 책임의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판각학교를 중심으로 전통 판각기술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기록과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국민 참여와 국제교류 등을 통해 팔만대장경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중진 스님들, 네팔 복구에 6000만원

돈명 · 수불 · 정만 스님 등 7명
엄홍길휴먼재단 통해 현지 전달


대구 도림사 회주 선각 스님, 대구 금화사 주지 진성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선본사 주지 혜안 스님이 동참했다. 성금은 네팔 현지에서 학교 설립과 구호 활동을 이어온 엄홍길휴먼재단을 통해 피해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

불교계 중진 스님들이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엄홍길휴먼재단에 긴급구호 성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10월 21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네팔 대홍수 피해 긴급구호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성금 6000만원 모연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을 비롯해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

임은호 기자



